

변영섭 문화재청장
'근본 탐구'는 내 원력
내 자리서 최선을 다할 뿐
16·17면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 <대지도론>

성냄이 없으면 안은하고
성냄을 없애면 후회가 없다.
성냄은 모든 독의 근본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0월 11일) · 주간

제966호 2013년 11월 13일 수요일

東大 교양교육 불교 홀대 “진정 종립대학 맞나”

불교관련 교양 21개서 내년도 2개로 축소 '논란'

동국대가 추진하는 2014년 교양 교육 개편안에 불교 교양 과목이 대거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불교소양을 지닌 인재 양성'이란 종립대학 설립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동국대가 지난 5월부터 구성한 학부대학설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새로운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에 따르면 2014년도 교양교육과정에서 불교관련 과목은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2개에 불과하다.

이번에 동국대 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양과 핵심교양, 일반교양으로 구성돼 있는 교양과정을 △대학 생활탐구 △더불어사는 삶 △글쓰기 △세계명작세미나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일일교양으로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2013학년 불교교양과목은 개설 강좌 수는 502개 중 21개(전체 4%)였지만 1학기 전체 교양 범주 11개 중 5개, 2학기 11개 범주 중 6개 등 각 분야에 골고루 포함돼 있었다. 학생들이 교양 수업을 통해서라도 불교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5월부터 회의를 시작한 학부대학 추진단은 10차례 회의 동안 불교대학 축을 배제했다. 자아와 명상과 불교와 인간 과목이 포함된 더불어사는 삶의 자아성찰 분야를 제외하고 개발위원회에 불교축 인사는 전무했다.

2014년 시행을 앞두고 불교 제외 비판이 일자 9월 말에서야 불교대학 축 인사를 참여시켰다. 현재 고전 강독을 주내용으로 하는 세계명작세미나 분야에 1명이 10월부터 포함될 상태다.

개발위원으로 추진단에 참여한 고영섭 불교대학 교수는 "이미 개발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안을 만든 상태

2013년 교양교육(불교관련)
기초교양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핵심교양
불교로 보는 서양철학의 역사/ 삼국유사와 한국사상/ 현상학과 인지과학의 마음, 불교의 마음/ 아난과 조직관계 리더십/ 동남아시아와 불교문화/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불교와 현대물리학/ 현대사회와 명상/ 동아시아 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 불교적상상력과 문학 예술적상상력/ 한국불교미술의 이해와 감상
2014년 신규교양교육(불교관련)
더불어사는 삶 - 자아성찰
자아와 명상, 불교와 인간
불교관련 과목 논의 중인 개편안
21세기 시민과정, 세계명작세미나

추진단에 불교대학 배제 비판일자 인사 참여시켜 불교대 '설립 취지 역행' 학교 '최종안 아냐' 해명

였다"며 "뒤늦게나마 세계명작세미나 만큼이라도 불교전을 각 세부 파트에 포함시키는 안을 제안했지만 포함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수는 "2006년까지만 해도 6개 교양그룹 중 1개 교양그룹이 불교관련이었다. 예전에는 불교교양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도록 했지만 점차 줄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종립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불교를 접하는 기회가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불교대학 측은 글로벌 교육과 같은 사회적 역량 함양 부분에서도 불교가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는 핵심교양 중 '아난과 조직관계 리더십' '동남아시아와 불교문화' 등 관련과목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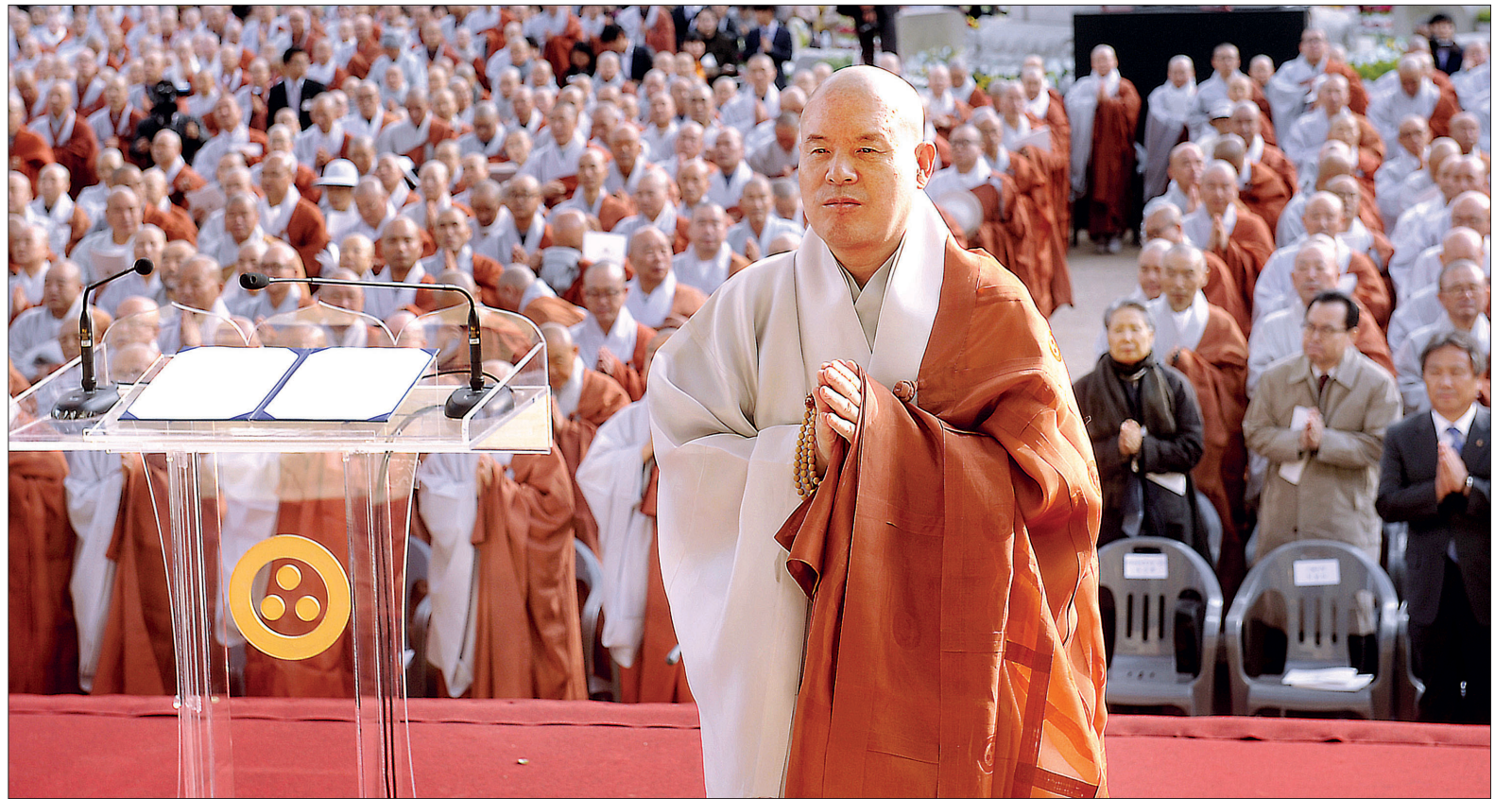
됐다. 불교대학은 더불어사는 삶 중 인간·미디어·윤리, 지구·환경·공생, 다문화사회의 삶 분야 등에도 학생들이 불교적 소양을 지닐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 2013년도 핵심교양에는 '생명과학과 불교윤리', '불교와 생명윤리학' '인지과학과 불교의 마음' 등 현대 각 분야와 불교가 접목된 과목이 다양하게 배치됐다. 불교대학 측은 '불교윤리'와 '불교생태' 전공자 등 관련과목에 대한 인적자원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추진단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훈 학사지원본부 교무팀장은 "리더십과 지역연구 등을 담당하는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은 경영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불교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현재 개편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전체 회의 등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전략홍보실 관계자는 "이번 교양교육 과정 개편의 근본 취지는 인문학 교육 강화, 고전읽기 확대, 글로벌한 교양과 리더십 강화"라며 "특정과목이나 특정학과의 배제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 교계와 교수 등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1월 29일 최종안이 마련되고 총장 결제를 받아 12월부터 과목별로 교·강사 선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대학의 한 관계자는 "동국대는 국내에서 불교학 특화에 강점을 띄고 있으며 이에 BK·HK 등 정부지원 사업을 따낸 바 있다. 대학원 입학자 또한 불교대학이 가장 많다"며 "이번 개편안은 종립대학의 특성과 정체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은 11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성과 쇄신은三世 잇는 우리의 역사”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

“오늘 제34대 총무원장 취임식에 임하면서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히 다짐합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취임 일성은 한국불교의 새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시작됐다. 조계종은 11월 8일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제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취임사에서 “지

난 33대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한 것은 종단 배부 분위기를 일신하는 한편,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 중생의 삶, 사회 현실을 바로 보고 함께 보듬을 수 있는 한국불교를 이루고자 했던 염원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자성은 지난 역사를 되짚고 참회하지는 것이고 쇄신은 내일을 준비해 변화 실천하지는 것”이라며 “자성과 쇄신은 과거와 현재, 미래 삼세를 잇는 우리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향후 한국불교가 풀어야 할 과제들로 △중앙총무원과 지방총무원행정기관의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승려복지의 안정적인 운영 △조계사 성역화 원만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한 단순히 조계종을 종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아닌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는 곳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자승 스님은 “우리 사회는 조계종이 단지 구성원만을 위한 종교 단체에 머물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다”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출가 수행자와 불자들은 한국불교가 지닌 대승(大乘)의 가치를 실제 구현해야 한다. 제34대 총무원 집행부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앞장서 실행하고 이루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교는 화합이 근본이다. 행정수반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중심으로 이와 사가, 승과 속이 원융 화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유진룡 문체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사에서 “제33대에 이어 34대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신 자승 스님께서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끌어 달라”며 “총무원장 스님의 큰 원력이 우리 사회의 신뢰와 화합을 이룩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불교 및 주요 정관계인사를 비롯해 이웃종교인, 저비나눔 방문처 인사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글=신종일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966호 INDEX

시상세계	5	종합	2·3	학술	9
창립 10주년 맞은 정교회 '길벗'		불교 수화동영상 46종 제작		동북아 힘 모아 불교학 발전 나선다	
		천태종·조불련 영통사서 합동법회		해외	17
		석굴암 균열 대책 필요		인도 불교 유적, 개발로 몸살	
		불교중앙박물관 인자사 기획전			

10.27법난 피해 스님·사찰 신청하세요

심의위원회, 2014년 12월 31일까지 접수

10.27 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정만스님, 이하 법난위원회)가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기간은 11월 11일부터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사찰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신고 및 명예회복 신청 대상자는 △10.27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10.27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피해자

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사람의 유족 △피해자나 스님의 신분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장 등이 다.

의리지금금 지급은 법난으로 인해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피해신고 및 명예회복신청서 1부, 피해경위서 1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다. 신청서류는 법난위원회 홈페이지(www.1027beonpan.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정 여부는 법난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난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신종일 기자 mtp79@hyunbul.com

산사새아침이 당신의 민감한 피부를 아름답게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산사새아침 생약 발효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은 기본재료를 1년이상 숙성 발효하여 용기 소켓고리에서 12~13시간을 거쳐 증류로 받는 원료 그대로를 제품화 하였습니다. 특히, 아토피, 여드름, 기미, 주름개선, 미백, 트러블에 좋은 화장품으로 식약청 인정 및 특허제품입니다. '산사새아침' 제품의 천연 원료는 우리나라 토종 지렁이인 참지렁이(red worms)를 직접 사용하여 1년이상 땅속에 묻어 숙성 과정을 거쳐 우리네 선조들의 전통 전례법제 공법인 용기(소주고리)로 한 방울씩 모아 하루 약 12시간 증류하여 제조한 것입니다.



△용기 소켓고리에서 증류로 받는 원료들

- 아토피성 피부청정
- 여드름성 피부청정
- 기미 & 주름 개선
- 피부트러블 청정

효능/효과

-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여 피부청정을 돕습니다.
-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여드름을 유발시키지 않아 피부청정을 돕습니다.
- 아동기 약건성 민감한 피부, 건조(거친)피부, 윤기없는 피부를 신뜻한 피부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 세안 후 즉시 사용, 또는 메이크업 이후 가볍게 뿌려 주시면, 화장이 뜯지 않고 밝은 피부톤을 유지시켜 줍니다.
- 피부건조, 각종 피부 트러블 등에 도움을 주는 탁월한 기능성화장품입니다.

사용방법

산사새아침 스킨케어는 기능성화장품으로써, 필요하다고 느끼실 때마다 적당량(1회 사용에 3~4번 분사)을 요구되는 부위에 직접 분사하여 사용합니다. 산사새아침 스킨케어의 내용물은 50ml이며, 약 300회 분사 가능합니다. ※ 사용 전, 위 아래(3회)로 정도 흔들어서 사용하십시오.

① 산사새아침 스킨

천연 미네랄 성분이 피부속 깊이 흡수되어 트러블 진정과 항균효과를 지속 유지하며, 외부 세균을 차단합니다. 피부 내부로부터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적절한 보습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항상 청결하고 신뜻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② 산사새아침에센스

천연 미네랄 성분이 피부속 깊이 흡수되어 트러블 진정과 항균효과를 지속 유지하며, 외부 세균을 차단합니다. 피부 내부로부터 과도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 적절한 보습 효과를 지속시킵니다. 가려움증을 예방하고 항상 청결하고 신뜻한 피부 상태를 유지시켜 줍니다.

③ 산사새아침 알로에 크림

천연 알로에베라겔이 피부를 매끄럽고 탄력있게 가꾸어 줍니다.



식약청 인정 및 특허제품 (특허 제 10-1230922호)



구입문의: 0331641-2598
010-3718-1866



■ 본사&기술연구소 :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7-109 ■ 제조공장 : 강원도 강릉시 내곡동 522 관동대학교 제 2학생회관 지하 1층